

‘풍전등화’ 신태용 감독 실험 보단 안정 택해야

유럽 원정 2연전 참담...내달 두차례 평가전 초점



신태용 감독을 보여주겠다던 그의 각오는 공염불에 그쳤다. 우여곡절 끝에 2018 러시아월드컵 본선행을 이뤄낸 한국 축구는 9회 연속 월드컵 진출이라는 대업을 달성했지만 현재 이들을 향한 축구 팬들의 마음은 싸늘하다 못해 분노로 가득 차 있다.

신태용 감독이 이끄는 축구대표팀은 지난 10일(한국시간) 스위스 빌/비엔노의 티소 아레나에서 열린

모로코와의 평가전에서 1-3으로 완패했다. 앞서 7일에 가진 러시아와의 첫번째 평가전에서 2-4 패배에 이은 2연패다.

신 감독은 이번 유럽 원정 2연전을 준비하면서 K리그 소속 선수들을 배려해 전원 해외파로 선수단을 꾸렸다.

신 감독은 울리 슈틸리케(독일) 전 감독의 경질 이후 위기에 빠진 대표팀 지휘봉을 잡았다.

그는 취임 당시 "나의 축구 인생을 걸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아시아최종예선 2연전을 통해 본선행을 확정했지만 경기력에 비난을 받아야 했고 곧바로 거스 히딩크(네덜란드) 전 감독의 후폭풍에 직격탄을 맞았다.

신 감독 본인도 '사면초가'라는 말을 통해 절박함을 전했다. 숱한 비난 여론 속에서 유럽 원정 2연전을 반전 기회로 삼았다. 하지만 결과는 졸전 끝 2연패였다.

전원 해외파라는 한정된 자원 속에서 신 감독이 정상적인 전술을 운영할 수 없었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드러난 이들의 플레이는 참담했다. 특히 모로코전의 경우 2진급 선수들에게 농락당했다는 점에서 더 큰 화를 만들었다.

이제 신 감독에게는 남기 기회가 많지 않다. 오는 15일 입국하는 신 감독은 오는 11월 9일과 14일(예정) 국내에서 갖는 두 차례 평가전에 초점을 맞춘다.

평가전 상대는 결정되지 않았다. 대한축구협회는 유럽이나 북중미, 남미의 본선 진출팀 혹은 본선에 못 갔어도 그에 준하는 팀을 섭외할 생각이다. 그나마 다행스러운 점은 남은 준비 기간 동안 K리그 선수들을 불러들일 수 있다는 점이다. 신 감독은 유럽 원정 2연전에서 그나마 쓸만했던 해외파들을 풀라내고 국내 K리그 선수들을 조합해 평가전 준비에 나선다.

아시아최종예선에서 돌보인 활약을 펼쳤던 이동국(전북), 염기훈(수원) 등 베테랑 선수들과 수비에 안정감을 불어넣었던 '무서운 신예' 김민재(전북) 등이 재승선할 가능성이 높다.

신 감독은 부임 후 총 4경기서 2 무승패리는 초라한 성적을 받았다. 이제 월드컵 본선까지 남은 기간은 약 8개월이다. 무의미한 실험은 뒤로 하고 안정화를 통해 월드컵 본선을 향한 준비가 필요한 시점이다.

‘현역 연장 의지’ 김병현, 도미니카 윈터리그서 뚝다

한 때 메이저리그 최정상급 투수로 활약했던 김병현(38)이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에서 현역 연장을 모색한다.

현지 라디오 진행자인 존 구즈먼은 지난달 25일(한국시간)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김병현이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히간테스 델 시마오 유니폼을 입은 사진을 공개했다.

리그 공식 홈페이지는 지난달 25일 히간테스 구단이 36명의 선수로 스프링캠프 격의 훈련을 시작한다면서 김병현도 합류했다고 전했다.

김병현과 도미니카공화국 윈터리그 아갈라스 시마오 소속으로 뛰며 재기를 노리는 강정호(30·피츠버그 파이어리즈)의 맞대결이 성사될 가능성도 생겼다.

한국 FIFA랭킹, 이제 ‘중국’에도 밀린다

韓 10월 예상 랭킹 포인트 588점...中 626점

수개월째 졸전을 거듭하고 있는 한국 축구가 국제축구연맹(FIFA) 랭킹에서 중국에 추월을 허용하게 됐다.

12일 FIFA 홈페이지에 따르면 한국의 10월 예상 랭킹 포인트는 588점이다. 9월 랭킹 포인트인 609점에서 무려 7점이나 하락했다.

9월에 51위를 기록했던 한국은 우리보다 순위가 낮은 러시아(64위), 모로코(66위)에 지면서 예상보다 많은 포인트를 잃게 됐다.

한국은 유럽 원정 2연전에서 러시아에 2-4, 2군이 나선 모로코에 1-3으로 달미를 잡았다.

10월 랭킹에서는 그동안 한 수

아래로 여겼던 중국에도 밀릴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예상 포인트는 626점으로 한국보다 42점 앞선다. FIFA 랭킹이 실력의 척도라고 볼 수는 없지만, 우리 입장에서는 분명 기분 나쁜 일이다.

10월 평가전에서 반등에 실패한 한국은 2018 러시아월드컵 4그룹 배정이 사실상 확정됐다. FIFA는 10월 FIFA랭킹을 기준으로 조 추첨을 진행할 것이라고 발표했다.

‘타격왕’ KIA 김선빈 “첫 KS 무대, 가슴이 설렌다”

2010년부터 주전 유격수 맡아...팀 간판 떠올라



“무조건 이기는데 보탬이 되겠다.”

2017 KBO리그 타격왕 김선빈(27)에게 한국시리즈는 생애 첫 무대이다. 2009년 한국시리즈의 주전 유격수는 김선빈이 아니었다. 2008년 신인시절 외국인 투수로 비어있는 유격수로 발탁을 받아 팬들의 인기를 모았으나 2009년 부상과 저조한 성적으로 엔트리에서 빠졌다. TV를 통해 팀이 우승하는 것을 지켜보았다.

2010년부터 주전 유격수를 맡았다. 매서운 타격에 탄탄한 수비력과 도루 능력을 과시하며 팀의 간판으로 떠올랐다. 풀타임 시즌은 2012년(126경기) 단 한번이었다. 발목 부상에 시달렸고 2011년에는 잘나가다 얼굴에 타구를 맞고 이탈했다. 2014년은 33경기에 그치며 쫓기는 듯 군에 입대했다. 그때까지 규정타석 3할은 단 한번도 이루지 못했고 타격 30할 안에 이름을 넣지 못했다. 연봉도 8000만원까지 뛰었다.

상무 복무를 마치고 돌아온 김선빈은 환골탈태 그 자체였다. 기마자세로 타석에 바짝 붙어 들어오는 공은 코스를 가리지 않고 안타를 생산했다. 찬스에도 강했다. 어느새 타격 순위 맨 위에 이름을 올렸고 3할7푼으로 생애 첫 타격왕을 차지했다. 178안타(5홈런), 64타점, 84득점, 출루율 4할2푼, 장타율 4할7푼7리, 득점권 타율 3할8푼2리. 모두 생애 최고의 기록이었다. 공포의 9번타자이자 완벽한 풀타임 리딩히터였다.

지난 11일 한국시리즈 준비 훈련이 펼쳐지는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만난 김선빈은 타격왕 비결에 대해 “캠프때부터 준비하면서 규정타석 3할이 목표였다. 이런 자리까지 오를지는 몰랐다. 군에서 잘 준비했고 감독과 코치께서 관리를 잘해주었다. 감독님이 도루를 자제하라고 하셨다. 그 부분이 컸다. 기술적으로 딱히 중점을 두고 연습한 것도 없다. 자세를 낮춘 것을 빼고

는 없다”고 말했다.

막판에는 두산 박건우의 타이틀 맹추격이 있었다. 그는 “시즌 막바지 되면서 5경기 남으니까 타격 1위가 의식됐다. 시즌 막판 안좋았는데 리딩히터 의식하다 부담감이 생겼다. 팀도 여유가 없는 것까지 겹쳐 흔들렸다. 박건우가 많이 쫓아왔다. 4월까지의 1할을 쳤는데 대안했다. 건우가 안다쳤으면 어떻게 될지 몰랐다. 운이 좋았다. 3경기 남은 시점부터 가망이 있겠다고 생각했다”고 설명했다.

그가 말하는 두 번째의 비결은 마음이었다. 그는 “제대하고 다시 경기에 출전하고 가점도 생기면서 마음가짐이 달라졌다. 프로는 성적으로 연봉으로 오른다. 내가 잘해야 와이프와 아이도(출산예정) 편하다는 책임감이 많아졌다. 입대장에는 연봉이 많이 다운되었다. 다시 올려야겠다는 생각도 컸다”고 덧붙였다.

막판 두산과의 1위 싸움도 부담이었다. 그는 “팀이 1위와 2위로 끝나는 것은 차이가 크다. 막판에는 우리 선수들도 부담이 컸다. 나도 무조건 이겨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고 마지막에 웃을 수 있었다. 지금 우리 팀 분위기는 2009년과 비슷한 것 같다. 선수들은 이기자는 한 마음으로 뭉쳐있다. 모든 것이 그때와 비슷하다면서 우승을 향한 선수단의 열망을 이야기했다.

생애 첫 한국시리즈를 앞둔 그의 마음은 어떤까? 김선빈은 “2009년 한국시리즈때는 몸이 아파 못나갔다. 잘하지도 못했고 특출난 것도 없었다. 당연한 것이라고 생각했다. 이번에는 실력이 크다. 솔직히 기대 반 걱정반이다. 무조건 팀이 이겨야 한다는 생각뿐이다. 팀에 보탬만 되는 플레이만 생각하고 있다. 수비와 타격에서 내 역할 다하겠다. 무조건 팀이 이길 수 있는, 보탬이 되는 선수가 되겠다”고 다짐했다.